



금수강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5 ISSN 1727—9062

8

2025년

루게 제432호 월간

표지: 진격의 나팔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길이 전하는 삼지연대기념비에 세워진 《진군》편.

진격의 나팔소리를 울리며 원썩격멸에로 용감히 돌진해나가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해주고있다.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 2 || 위대한 전승 72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진행
- 6 ||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에 즈음하여 전승 세대와의 상봉모임과 예술공연 진행
- 9 ||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을 맞으며 다채로운 행사 진행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 14 || 해방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
- 일화
- 18 ||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던 나날에
- 19 || 노래로 시작된 우리 혁명
- 20 || 항일전의 나날을 형상한 화폭들
- 22 || 《하늘이 낸분》
- 23 || 개선문
- 수필
- 24 || 주작봉마루에서
- 25 || 고조되는 계승자들의 답사열풍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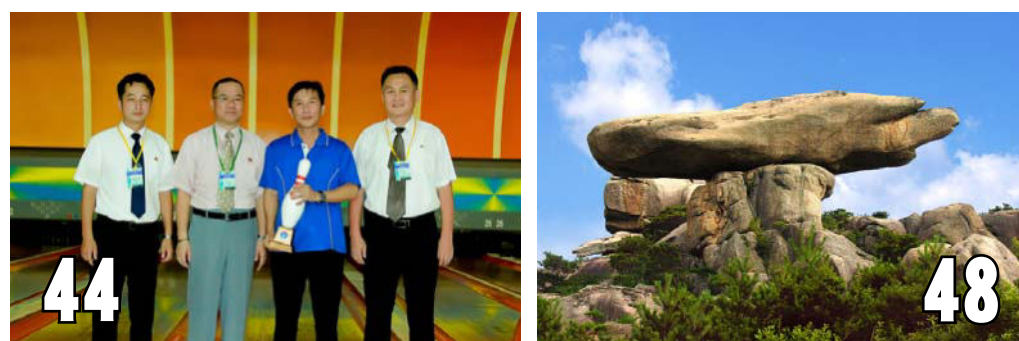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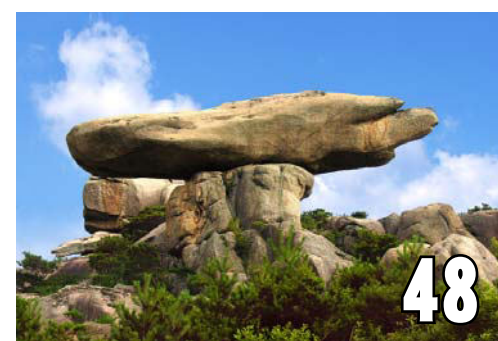
31



34



44



4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28 || 보금자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30 || 자기꽃병

31 || 선군길에 새겨진 사연깊은 지명들

수기
33 || 그 품에서 영웅청년들이 자란다

34 || 명사십리가 인파십리로

40 || 평양의 자랑 옥류관

애국의 넓은 대를 이어
44 || 보령공은 곡선을 그려도

인상기
46 || 《마음이 든든하다》
46 || 놀라운 현실

48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금강산

민족의 향기
52 || 손이 닿으면 병이 낫는다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54 || 덕흥리벽화무덤

력사인물
56 || 고구려의 애국명장 온달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위대한 전승 72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진행

세기와 년대를 이어 즐기치게 이어지는 주체 조선의 승리의 력사, 불굴의 영웅정신을 과시하며 전승 72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7월 27일 저녁 평양체육관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이 전쟁로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전승절경축행사에 특별초청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하 포병구분대 군인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안의 일군, 공로자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잡았다.

주체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7.27을 세대를 이어 경축하는 인민의 환희를 더해주며 종합군악대가 경쾌한 선율과 특색있는 기교로 군악례식을 펼치였다.

행진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울려 퍼지자



한세대에 강포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고 영웅조선, 자주강국의 영원한 승리전통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친위중대상징종대를 선두로 기념행진이 개시되었다.

항일빨찌산이 물려준 우리 군대의 원피줄기, 수령결사옹위의 혈통을 굳건히 이은 혁명강군의 첫세대 친위병들, 조선의 운명인 최고사령부를 지켜 억척의 방탄벽이 되었던 현철해, 연형묵, 박송봉, 심창완동지를 비롯한 열혈충신들의 초상이 태양을 옹위하는 충성의 별무리들로 행진대오에 빛나고있었다.

전승의 열병광장에 나뭇갓던 포연서린 근위군기를 진두에 나뭇기며 가렬처절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전설적인 근위사단상징종대들이 보무당당히 광장으로 들어섰다.

조선인민군 초대총참모장이였던 항일혁명투사 강건동지의 명함을 지닌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상징종대에 이어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상징종대, 근위 서울김책제4보병사단상징종대들이 광장을 행진해갔다.

상징종대들의 전렬에서는 자력항일의 기치높이

조국의 해방에 커다란 공적을 세웠으며 제국주의련합무력을 격멸하는 행정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투철한 신념과 뛰어난 군사적자질로 받든 김책, 강건, 최현동지들을 비롯한 건군공신들의 초상사진이 나아갔다.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최고사령부의 전략적방침과 작전적의도를 받드는 길에서 한치의 에누리도 몰랐던 조선인민군의 첫세대 충신지휘관들, 어깨우의 별을 값비싼 군공으로, 영웅의 금별로 빛내인 혁명강군의 만아들들이 진격로를 열어 나갔기에 위대한 전승을 안아올수 있었음을 웅변하며 근위 제6보병사단상징종대와 안동최춘국제12보병사단상징종대가 발구름을 높이였다.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맞이한 인민의 새세상, 제손으로 띄워올린 자주독립국가의 국기와 행복한삶의 터전을 지켜 평범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출신의 지휘관, 병사들이 전설적인 무훈과 영웅적인 전승신화를 창조한 조국해방전쟁의 1 129일에 대한 값높은 추억이 행진대오와 함께 흘러갔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피더운 가슴으로 적화점을 막고 팔다리가 부서지면 턱으로 중기압철을 누른 불사조들,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에 뛰어든 육탄영웅과 포병영웅, 저격수영웅,





비행기사냥군조영웅을 비롯하여 전승세대의 명예의 대표자들이 근위사단상징종대들과 함께 불멸의 대하로 굽이쳤다.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땅크전법으로 서울시가에 맨먼저 돌입하여 적의 아성에 공화국기를 휘날린 고현빈영웅과 대전해방전투에서 미제의 《상승사단》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린 땅크병영웅들의 모습도 전진하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상징종대의 대오속에 기록처럼 나뉘었다.

전승절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승리의 축포, 경축의 축포가 끝없이 터져오르는 광장으로 근위 제2어뢰정대상징종대, 근위 제56김지상영웅추격기련대상징종대가 용진해갔다.

단 4문의 포로 5만대적의 상륙을 3일간이나 막아내고 4척의 어뢰정으로 중순양함을 격침시킨 세계해전사의 류레없는 기적, 프로펠러식추격기로 미제의 전략폭격기를 단번에 쏘멸구고 비행기와 함께 적함으로 돌입한 영웅들의 위훈도 상징종대들에 뜨겁게 어러왔다.

포항의 16용사를 배출한 근위 제10보병련대, 하루밤사이에 백여리를 내달려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대전포위를 결속한 날개돋친 호랑이부대 근위 리훈제18보병련대와 근위 제14보병련대, 근위 제86보병련대들의 혁혁한 군공을 전하는 군기들을 나뉘기며 상징종대들이 힘찬 보무를 내짚었다.

미제의 《공중신화》를 추풍락엽으로 만들며 평양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 최고사령부를 결사보위한 근위 제19고사포병련대, 근위 제23고사포병련대의 자랑스런 군공을 체현한 상징종대들의 발구름소리도 드높았다.

총포성없는 전선과 전구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최후의 순간까지英勇하게 싸운 정찰일군들과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보이지 않는 전조선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희생하며 전승의 날을 앞당긴 내무원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내무성상징종대, 불비속을 뚫고 전선으로 내달리던 전시수송전사들의 무비의 위훈을 전하는 철도병상징종대가 광장을 활보해갔다.

전체 관중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기의 귀중한 생명으로 맞바꾼 1953년 7월 27일의 승리는 결코 인류전쟁사에 기록된 력사의 순간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가야 할 고귀한 전통이고 계승의 표대임을 절감하며 상징종대들에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조선인민군의 룡해공군종대들이 지축을 울리며 광장으로 들어섰다.

위대한 당중앙의 혁명사상을 세계최강의 절대병기들에 만장약하고 누구도 멈춰세울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원수들에게 1950년대의 전쟁과는 대비할수 없는 가장 참혹한 패배를 안길 무진막강한 룡군종대가 국방성군기와 대련합부대들의 군기를 추켜들고 위엄있게 행진해갔다.

만리대양에로 내뻗치는 주체조선의 힘과 기상을 안고 가속적으로 급진전하는 주체적해군무력의 현대성을 파시하며 조국수호의 항로에 불멸의 항적을 새겨나가는 해군종대와 당중앙의 친위군, 혁명보위의 제일결사대, 하늘의 육탄비행대의 자부심드높은 공군종대의 기세도 충천하였다.

세기와 년대를 이어 드림없이 고수하고 빛내여온 우리 군대특유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 무비의

용감성과 전무한 영웅적희생정신, 헌신적복무로 조선혁명의 눈부신 승승장구를 담보해가는 백전백승의 최정예대오, 일당백무적강군의 대표자들에게 전체 관중들은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었다.

경축행사의 마감을 환희롭게 장식하며 조선인민군 공군비행대가 부채살대형으로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의식이 끝나자 지심을 울리는 축포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오색찬연한 불꽃들이 전승절의 밤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며 쏟아져내렸다.

전승 72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은 혁명의 개척세대, 전승을 안아온 영웅세대의 정신을 성스러운 혈맥으로 이어가며 기적적무훈과 경이적인 신화창조로 우리 세대의 몇몇한 새 력사를 금지높이 써나가는 **김정은**시대의 도도한 전진기상과 조선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기세를 온 세상에 힘있게 보여주었다.

* * *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에 즈음하여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과 예술공연 진행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과 예술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노래 《우리의 7.27》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우리 국가의 영예로운 첫 수호자이며 숭고한 애국정신의 체현자들인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들어서자 열렬한 존경과 환영의 마음들이 박수갈채로 터져올랐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이 전쟁로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도당책임비서들, 전승절

경축행사에 특별초청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하포병구분대 군인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안의 일군, 공로자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태성동지가 발언하였다.

총리동지는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우리 조국의 신성한 전승절의 영원한 주인공들인 전국

의 모든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었다.

72년전 전승세대가 력사의 비문에 써놓았던 백승의 철리는 승리의 대를 역세계 이어 강국의 새 력사를 과감히 개척해나가는 우리 국가의 힘과 위상으로써 다시금 확증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세인이 공인하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정의로움과 영웅성은 더욱 숭고한 경지에서 과시되고 보다 새롭고 광범위한 령역에서 루적되는 우리 투쟁의 궁지높은 전취물들은 7.27의 심원한 의미를 더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오늘의 상봉모임은 모든 영예의 성스러운 출발이었던 승리의 날을 받들어 가렬처절한 전투포화를 헤쳐온 영웅세대와 고결한 그 넋을 이어 조국력사상 가장 기록적인 승리와 불멸의 명예를 쟁취한 새세대가 함께 경축하는 참으로 감격적이고 경사스러운 자리이라고 언급하였다.

총리동지는 전승세대가 한생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살며 싸웠고 우리 세대에 바통으로 물려준 혁명신념, 수호의 정신이 곳곳이 살아있기에 승리의 대는 굳건히 이어질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후세 토록



계승될 전승국의 명예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무궁할 존엄과 번영을 위하여 용기백배 앞으로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어 예술공연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위대한 승리의 체현자, 증견자들과 강국조선의 수호자들의 뜻깊은 상봉의 환희를 더해주며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관람석에 자리잡은 전쟁로병, 전시공로자들에게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이 꽃다발들을 안겨주었다.

동방일각에 일떠선 첫 인민의 나라, 요람기의 신생공화국이 《전쟁의 세기》로 불리우는 20세기 중반기에 미제에 의해 강요당한 전대미문의 참화를 고발하는 기록화면들이 피어린 추억을 불러오며 무대우에 흘렀다.

제국주의폭제를 맞받아 정의와 수호의 화산이 되어 일떠선 조선의 영웅적기상, 비록 청소했어도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피로써 지켜낸 강인한 인민의 백절불굴의 항전사가 어려오는 전시가요들과 전승찬가들이 력사의 진실과 강약의 철리를 되새겨주며 메아리쳤다.

수호자가 틀어잡았던것은 보병총, 침략자가 휘두른것은 원자탄, 세계전쟁사에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중과부적인 열전에서 《당과수령을 위하여!》, 이 부름을 진군가마냥 높이 웨치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단결의 새 력사와 천추만대로 계승해야 할 고귀한 승리전통을 창조한 전승세대의 넋과 공적을 길이 전하는 명곡들이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승열병식장에서 조선인민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존귀하신 영상이 화면에 모셔지고 우렁우렁하신 육성록음이 울리자 관람자들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리론, 령활한 전략전술과 담대한 배짱, 열화와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고 영웅조선을 탄생시키신 만고의 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에 넘쳐 열광의 박수를 터쳐올리었다.

전승국의 명예와 더불어 무궁토록 영생의 금별로 빛날 영웅세대에 대한 후손들의 경의가 뜨겁게 흐르는 노래 《전승세대》는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조국에 절대적 신성함과 영광만을 더해주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같은 애국충성을 격조높이 구가한 공연은 로동당시대 전승찬가들인 《우리의 7.27》,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로 끝났다.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무대에 올라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공연성파를 축하해주었다.

* * *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을 맞으며 다채로운 행사 진행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적성파들을 안아오기 위한 장엄한 투쟁행로에서 뜻깊은 전승절을 성대히 경축하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이 땅 위에 강대하고 존엄높은 영웅조선,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군중들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비범한 령군술로 제국주의폭제를 짓부시는 성전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룩하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기틀을 억척으로 다져주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며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력력히 깃들어있

는 각지의 혁명사적지들을 찾은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은 탁월한 사상과 전략전술로 세계전쟁사에 특기할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장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 신미리에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각지에 있는 려사들의 동상과 려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려사묘들을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인민군장병들이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



전승절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조국해방전쟁사적지와 전승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각지에 있는 려사들의 동상과 려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려사묘들에 화환과 꽃송이가 진정되었다. (함경남도에서)



각지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 경축공연이 진행되었다. (강원도에서)

경축연회가 27일 인민문화궁전과 옥류관, 청류관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전승의 날, 조국해방 전쟁 승리 72돐을 경축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가 26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노래 《우리의 7.27》로 야회가 시작되었다.

수도의 밤하늘가에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광장 바닥에 《7.27》, 《승리》의 글발들이 새겨지고 다양한 대형 변화가 펼쳐지면서 아름다운 춤 물결이 일어 번졌다.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비범한 령군술로 전승의 기적을 안아오시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야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전승의 명절》의 노래 선율에 맞추어 경축의 원무를 펼쳐나갔다.

가장 위대하고 존엄높은 강국의 새 전기를 펼치시며 주체조선의 국력과 국위를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끝없는 행복을 담은 노래 《인민의 환희》, 《그품이 제일 좋아》가 울려 퍼지며 야회분위기는 고조를 이루었다.

청춘의 희열과 랑만으로 충만한 야회장의 하늘가에 오색찬연한 축포의 화광이 황홀경을 펼쳐었다.

전승세대가 지녔던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성과 백질불굴의 투쟁정신, 투쟁기풍

으로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뜻을 높이 받들어 강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열혈청춘들의 불굴의 신념을 파시한 야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로 끝났다.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수도 평양과 전국각지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모란봉극장에서 열린 국립교향악단 음악회에는 피아노협주곡 《결전의 길로》, 관현악 《7.27행진곡》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은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위훈을 장중한 울림과 정서적인 선율로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국립교예단 배우들이 출연하는 종합교예공연이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되어 관중들에게



전승세대의 넋을 이어나가기 위한 새세대들의 결의모임과 계승의 행진이 진행되었다.

기쁨을 안겨주었다.

수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도 이채로운 야외공연무대가 펼쳐져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전승세대의 넋과 투쟁전통을 이어 주체조선의 승리의 7.27을 천만년 길이 빛내여갈 강국인민의 불같은 열의가 담긴 공연들은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남포시, 개성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경축공

연과 전시가요무대가 펼쳐졌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2돐을 뜻깊게 경축하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불패의 우리당, 강대한 우리 국가의 위대한 존엄이시고 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영웅조선의 백승사를 곳곳이 이어갈 혁명적의지를 가다듬었다.

글 김지성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경축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진행되었다.



조국해방

80돌을 맞으며

1945. 8.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20성상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여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을 안아오시었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해방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은 물론 매 인간의 운명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1945년 8월 15일.

온 나라 강산이 조국해방을 맞이한 환희로 세차게 들끓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80돌기의 년륜이 새겨졌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전반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면서 침략전쟁의 길에 나섰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해일속》에 비유하였다. 그러나 이 《한알의 좁쌀》

이 일제라는 《바다》를 뒤엎을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1932년 4월 25일에 창건된 조선인민혁명군은 당시 100여명 정도의 대원을 가진 크지 않은 대오였다. 국가적인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었다. 대원들은 보총과 권총으로 땅크와 비행기, 함선 등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한 일제와 맞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고하신바와 같이 항일의 혈전만리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난과 시련을



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었다.

이겨내야 하는 길이었다.

그런 험로역경의 길, 피의 바다를 그이께서는 강인하게 헤치시여 이 땅에 우리 인민의 절절한 숙망이었던 조국해방의 새 아침을 안아오시었다.

하다면 위대한 수령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실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은 무엇이였는가.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압록강가에 이르시었을 때였다.

이제 사랑하는 조국을 하직하면 언제 다시 이강을 건너보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이의 가슴은 몹시 쓰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조국을 추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소중히 간직하고 싶으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시었다. 그리하여 그이께서는 강북우에 있는 조약돌 하나를 집어 손에 감싸쥐시었다.

그러시고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압록강을 건느시었다. 그때 그이께서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었다.

그이께서 소중히 감싸쥐시었던 자그마한 그 조약돌과 굳게 다지신 그날의 맹세, 여기에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열렬한 조국애가 어려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렇듯 강렬한 열과 정을 지니시었기에 그이께서는 누구나 선뜻 나서기 힘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었다.

그 길에는 《시향가》의 은은한 노래로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심어주시던 잊지 못할 그밤의 사연도 새겨져있고 세계정권건설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기 위해 바치신 로고에 대한 이야기도 깃들어있으며 조선사파를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주

시여 그들의 마음속에 조국의 향기, 애국의 넋을 심어주신 사실도 있다.

항일전의 그 나날 그이께서는 저녁노을이 비낀 압록강에서 들려오는 때몰이군들의 구슬픈 노래소리를 들으시며 오늘은 저 금수강산이 일제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원수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다시 찾고야말것이라고 하시였으며 유격대원들이 끌고온 황소를 보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라고 일깨워주시었다.

항일혁명전쟁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천만고비를 뚫고헤쳐야 하였던 피어린 싸움이였다.

사면팔방으로 악착스럽게 달려드는 일제침략자들과의 치렬한 전투,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만주광야의 혹한, 모진 굶주림, 무서운 병마...

이 길에서 그이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쓴 구호문헌중에서



《동포들이여 민족의 력수 김대장 따라 항일전에 힘있게 나서자》

《우리모두 독립의 날 부끄럽지 않게 항일의 한조 한조를 값있게 살자》

《항일대전승리 만세》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었다.

부모님들과 동생을 잃는 가슴아픔도 당하시고 생사를 같이하다 쓰러진 전우들을 언땅에 묻어야 하는 쓰라림도 겪으시었으며 옥중고초와 적탄이 귀전을 스치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험로역경의 무수한 고비들을 넘으셔야 하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 모든것을 깨끗이 이겨 내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의 길을 진두에서 열어나가시었다.

1935년 1월하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원정대가 북만에서 돌아올 때였다. 천교령 일대에서 원정대를 발견하고 끈질기게 따라오는 적들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총격전을 벌리며 전진하는 10여명의 대오, 적아간의 전력은 대비도 되지 않았다.

적들과의 끊임없는 전투와 모진 굶주림과 추위속에서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 서시어 대오를 이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축한으로 의식을 잃으시었을 때 대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것만 같았다.

그때 그이의 심중에 자리잡은것은 우리가 여기서 더 추서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재생의 희망을 가지고 항일유격대만을 믿고 의지하던 전체 조선민족이 슬퍼하고 실망할것이라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온몸을 불덩이처럼 달구는 고열로 목은 지지는듯 타들고 말조차 하기 힘들었지만 가까이에 있던 대원에게 《반일전가》의 가사를 받아쓰게 하시었다.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살아 혁명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비상한 책임감

과 칠성판에 오른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그이의 신념과 의지는 대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이렇듯 항일의 격전장들에 새겨진 자욱마다에서 맥박친것은 바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였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생명수로 받아안은 항일 유격대원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열혈의 애국투사들로 자라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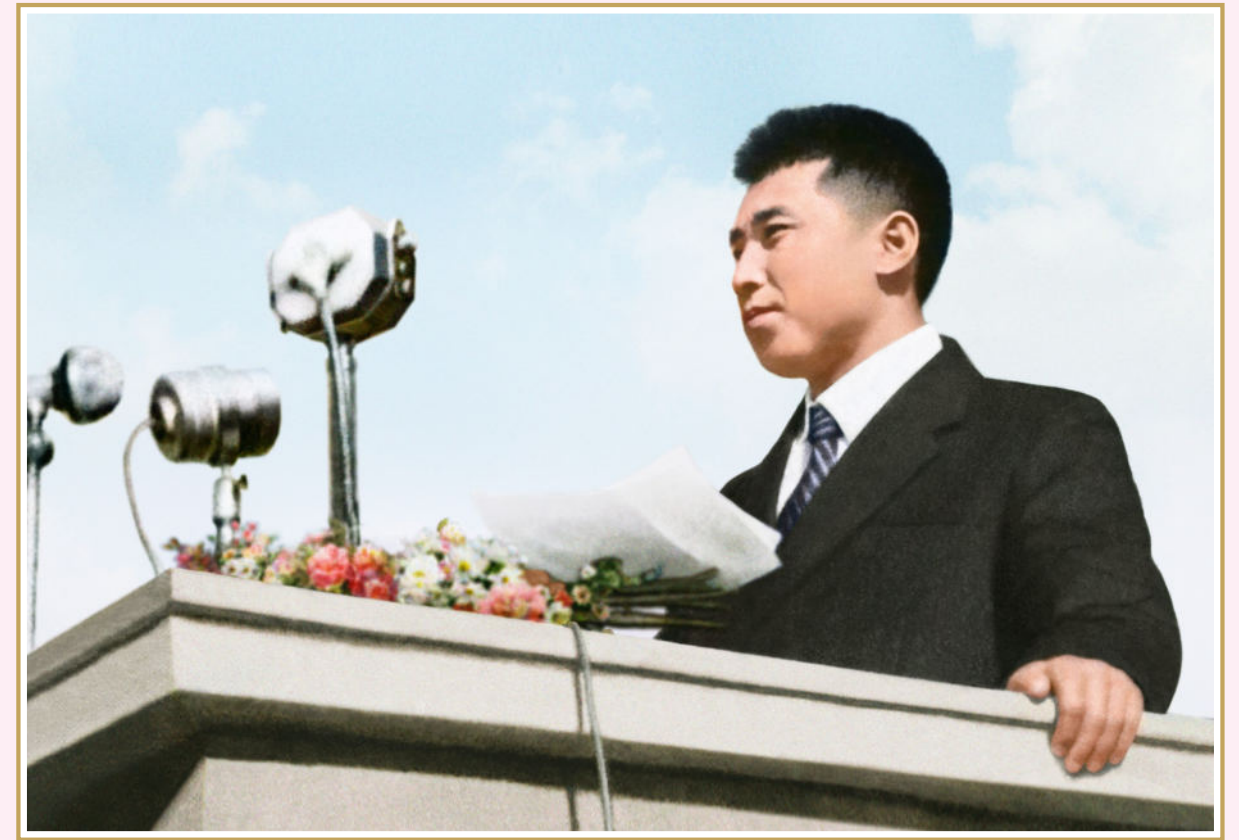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억천만번 쓰러져도 끝까지 고난을 헤쳐나가는것이 그들이 지닌 애국의 념, 애국의 의지였다.

그들가운데는 젖먹이어린이를 남의 집 처마 밑에 두고 눈물을 삼키며 항일전에 나선 녀대원도 있었고 원수들에게 체포되어 희생되는 마지막 순간에 조국해방의 래일을 그려보며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친 투사도 있었으며 사령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기 허를 꿰는 투사도 있었다.

이렇듯 그이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의지는 그대로 조선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혁명의 길에 나서게 하였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념과 의지로 맥박치게 하였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끝까지 믿고 싸운 참다운 혁명가들로 되게 하였다.

그것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기에 조선 인민혁명군 대원들은 -40℃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도 일제와 싸워 언제나 이길수 있었으며 마침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진정 불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수십성상 간고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5년 10월

한 혁명투쟁의 길을 걸으시어 조국해방의 날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은 절세의 애국자, 해방의 은인이시다.

애국의 뜻이 어려 더욱 빛나는 그이의 조국

해방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나날이 부강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승리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글 변진혁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해방의 환희에 넘쳐있는 인민들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나날에

평활한 전술로

1937년 3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 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검질기게 뒤쫓아오는 적들을 달고 험한 령길을 오르고있었다.

립춘이 지난 때였지만 어찌나 눈이 많이 쌓이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지 령마루에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예리하게 판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대에 눈밑으로 굴을 뚫고나갈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었다.

부대는 곧 눈을 뚫고 전진해나갔다. 뒤에 선 대원들은 대오가 빠질 때마다 굴을 허물어버렸다. 세찬 눈보라는 순식간에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유격대의 뒤를 쫓아 허둥지둥하며 령밀까지 다달은 적들은 눈우에 흘날리는 가랑잎만 보고 어안이 빙빙해지고말았다.

얼빠진 적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아우성을 쳤다.

그리고는 종잡을수 없는 이 신기한 현실앞에 그만 겁을 먹고 도망치고말았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부터 《김일성장군님은 가랑잎으로 군사를 나르신다.》는 전설이 파다하게 퍼져 인민들에게는 필승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적들에게는 절망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기묘한 유인매복전

항일무장투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조선인민혁명군의 행처를 찾아헤매던 수백명의 적들이 홍두산밀영으로 기여들었다.

당시 밀영에는 수십명의 대원들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정을 살피시며 대원들에게 산의 남쪽릉선을 차지하도록 명령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적들이 이 일대의 지형을 잘 모르는 약점을 리용하여 달려드는 원수들을 칼날같이 생긴 룡선에 몰아넣고 호되게 답새겨버릴 신묘한 지략을 펼치시었던것이다.

몇명의 대원들이 적들을 아군의 매복진지앞으로 유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달려드는 적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첫 타격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적들은 룡선을 차지하려고 발악하였다.

그때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맹렬한 집중사격으로 적들에게 복수의 명중탄을 퍼부었다. 이날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친 적들도 조선인민혁명군의 야간습격에 의하여 또다시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그후 적들은 《유격대의 유인매복전에 걸려들면 뼈다귀도 못찾는다.》고 하면서 공포속에 불안을 느끼였다.

축지법을 쓰는 유격대

1937년 2월 어느날 일제침략자들에게 호된 불벼락을 안긴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승리의 노래높이 한 마을로 돌아오고있을 때였다.

악에 반친 일제《토벌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인 장백현 리명수골에서 소멸하겠다고 떠벌이면서 급기야 출동하였다.

적 정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키고 또 다시 답새길 신묘한 지략을 펼치시었다.

그이께서는 부대가 하루밤사이에 100여리길을 강행군하여 적들보다 먼저 리명수골을 차지하도록 하시었다.

이것을 알리없는 적《토벌대》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아직 몇십리밖에 있는줄로만 생각하면서 마음놓고 리명수골안으로 밀려들었다.

은밀히 매복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신묘한 매복에 걸려 또다시 무리죽음을 당한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축지법을 쓰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와서 칠수 있겠는가.》고 비명을 질렀다.

* * *

노래로 시작된 우리 혁명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혁명가요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총포탄이 작렬하는 싸움터와 설한풍이 휩쓰는 천고의 밀림에서 신념의 메아리로 높이 울려했던 항일혁명가요들.

혁명가요들을 불러보느라 먼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몸소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기록하신 영상이 숭엄히 어리여온다.

노래를 떠난 생활이 존재할수 없듯이 노래를 떠난 혁명의 전진과 승리가 있을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안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들을 몸소 창작하시어 인민들을 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키시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사향가》, 《피바다가》, 《반일전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

천교령의 눈보라행군길에서 축한으로 쓰러지신 속에서도 대원들에게 《반일전가》를 불러주시며 그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간고하고도 장구한 항일혁명의 나날 영영 쓰러져 다시는 일떠서지 못할것만 같은 최악의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설 때마다 승리할 래일을 확신하시며 혁명적인 노래로 대원들을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혁명세계는 투사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창작적열정을 안겨주었으며 신념의 노래가 창작되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조국과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고 승리를 락관하는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만이 모진 고난속에서도 비판을 모르고 신념의 노래들을 지어 부를수 있다.

한편한편의 항일혁명가요들은 투사들의 신념의 웨침, 혁명의 메아리이다.

불러보면 혁명가요들은 그 어떤 주제나 양상의 노래이든 모두 혁명적신념을 기초로 한 노래들이다.

혁명은 곧 신념이다.

신념으로 걷는 길이 혁명의 길이고 죽어도 버릴수 없는것이 혁명가의 신념이다.

투사들은 언제나 혁명가요들을 부르며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고 죽음앞에서도 이 노래들을 부르며 혁명승리를 굳게 확신하였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

를 칠 투사들의 혁명정신이 반영된 《옥중투쟁가》, 《빨찌산추도가》, 나라를 빼앗기고 망황하는 인민들을 일제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킨 《혁명가》, 《총동원가》, 《반일가》, 《불평등가》, 《녀성해방가》, 항일유격대원들의 전투적량만과 혁명적기개를 락천적으로 구가한 《유격대행진곡》, 《혁명군의 노래》 등의 혁명가요들.

항일혁명투사들은 이 노래들을 부르며 것처럼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워나갔다.

정녕 항일의 전구들마다에서 울려퍼진 혁명가요들은 투사들에게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겨주고 원수들에게는 철추를 내린 힘있는 무기였다.

항일의 나날 창작된 혁명가요들은 귀중한 혁명의 유산, 정신적재부로 세대와 년대를 이어 후대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신념의 노래 높이 울리는 곳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이 력사를 통해 우리가 새긴 진리이다.

글 엄향심

항일전의 나날을 형상한 화폭들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작된 미술작품의 일부



출판화 《노래동무》



출판화 《아 그리운 조국》



조선화 《병기창에서 연길폭탄을 만드는 항일유격대원들》(최남훈 · 1960년)

평양에 있는 조선미술박물관에는 항일혁명선열들을 형상한 많은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항일혁명선열들은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고스란히 바쳐 성스러운 조국해방을 안아온 혁명의 1세로 불리우고 있다.

사령부의 안녕을 지켜 스스로 허를 꿰고 한몸이 그대로 방탄



조선화 《일제를 무찌르며 진격하는 조선인민혁명군》(최근계, 김동용 · 1969년)

벽이 된 열혈의 충신들,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라면 총구앞이라도 서슴없이 나선 견결한 투사들, 이것이 우리 혁명의 첫 페이지에 아로새겨진 항일혁명선열들의 모습이였다.

하기에 수많은 화가들이 그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조선화 《장군님의 혁명전사》, 《근거지의 방위자들》, 《로흑산의 용사들》,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병기창에서 연길폭탄을 만드는 항일유격대원들》, 《사향가》, 출판화 《노래동무》, 《아 그리운 조국》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고결하고 숭고한 것인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선화 《장군님의 혁명



조선화 《로흑산의 용사들》(리완선 · 1970년)

전사》, 《근거지의 방위자들》을 비롯한 작품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혁명신념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들의 신념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는 것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또한 조선화 《사향가》, 출판화 《노래동무》를 비롯한

작품들은 투사들의 락천적인 생활모습을 반영하였다.

하기에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이 작품들앞에서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글 김슬기
사진 리철

《하늘이 낸분》

일제에게 강탈당한 국권을 언제면 되찾게 될 것인가.

이것은 나라를 외세에게 송두리채 빼앗겼던 당시 조선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정든 고향을 떠나 이국살이를 하는 왕청의 자피거우마을사람들도 모여앉으면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판을 펼쳐놓곤 하였다. 하지만 누구도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수 없었다.

그러던 1941년 여름, 그즈음 날아드는 소식은 모두 불길한것들뿐이었다. 그해 봄에는 쏘련(당시)과 일본이 손을 잡고 화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니 얼마후에는 파쑈도이칠란드 군대가 쏘련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마을의 좌상로인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였다.



한때 다른 나라에서 그 무슨 활동을 하다가 마을에 와서 계몽사업을 한다는 한 젊은이에게 물었더니 그는 조국해방이 한 10년후 아니면 20년후에 되겠는지 하고 막연한 소리를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실망하였다.

과연 조선의 해방은 언제 실현되겠는지?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오직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이께서 마을에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마을사람들이 기다리던 날은 드디어 왔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를 거느리시고 왕청일대에서 활동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마을에 잠시 들리시었던것이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마을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이께 말씀드렸다.

《장군님, 우리 조선이 언제쯤 독립됩니까?》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시고나서 확신에 찬 어조로 앞으로 3~4년간 더 참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꼭 광명한 날이 온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다보신 조국해방의 날, 그것은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역량관계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신데 기초한 과학적인 예언이었으며 이 기간내에 기어이 조국해방을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의 분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때로부터 4년후인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했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이 마을에도 날아왔다.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마을사람들에서 좌상로인은 무릎을 치며 말했다.

《과시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시야. 그렇지 았구서야 칠혹같이 암담하던 그 세월에 어떻게 오늘을 내다보실수 있었단 말인고.》

* * *

개 선 문

개선문은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이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1982년 4월 14일에 제막되였다.

평양의 모란봉기슭에 있는 김일성경기장의 앞도로 축상에 세워진 개선문은 높이가 60m인 4층으로 된 웅장한 기념비적 석조건축물이다.

1층 네면의 중심에 사방으로 통하는 무지개형의 문과 2, 3, 4층의 체감식으로 된 평지붕들로 구분되어있는 개선문은 《유격대나팔수》를 비롯한 부각상들을 통하여 그 기념비적내용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1925》, 《1945》라는 년대는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마침내 조국해방의 봄을 안아오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고귀한 혁명업적을 전해주고있다. 그리고 2층 좌우측벽면에 선각의 수법으로 형상한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과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할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북쪽면과 남쪽면에 있는

부주제부각상들의 형상은 조국해방의 크나큰 기쁨과 감격이 온 강산에 차넘치던 력사적 사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건당, 건국, 건군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새 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잘 반영하고있다. 참으로 개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이 얼마나 크나큰것인가를, 이 땅의 모든 번영과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이 과연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웅장한 건축형상과 명료한 조각형상으로 보여주는 기념비적건축물이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주작봉마루에서

조국해방 80돐을 가까이하는 어느날 나는 아들과 함께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았다.

주작봉마루에 올라 항일혁명렬사들의 반신상을 마주하고보니 생각이 절로 깊어졌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일점혈육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간 려사들.

투사들의 반신상을 바라보던 소학교학생인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엄마, 우리 선생님이 항일혁명렬사들은 영생한다고 했어요. 영생한다는것은 무슨 뜻이냐요?》

철없는 아이의 물음을 받고보니 나의 마음은 그 무엇인가에 감전된듯 찌르르해오는것이였다.

영생!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영원한 삶은 아무에게나 다 차례지는것이 아니다.

흐르는 세월은 인간의 한생을 놓고 누구에게는 수치스러운 불명예를, 또 누구에게는 빛나는 존엄을 안겨준다. 오늘도 그 이름 길이 전해지는 값높은 삶의 주인공들을 하나하나 그려본다.

언제 조국이 해방될지 기약할수 없었지만 그들은 승리의 날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아낌없이 바쳤다.

오중흡, 마동희, 리권행, 최희숙...
이름과 성별, 나이는 달랐지만 그들의 심장속에 하나와 같이 굳세게 자리잡고있었던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신념이였다.

절해고도에서도,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기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억척의 신념을 간직하고있었기에 그들은 자기의 청춘을 서슴없이 바칠수 있었으며 오늘은 영생의 언덕에서 한생을 떼떈이 총화하고 후대들이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다.

력사를 소급해보면 준엄한 시각이 오면 저 하나의 목숨과 영달을 위해 의리를 저버린 인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종착점은 치욕과 오명, 버림받은 인생의 시궁창이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은 더없이 귀중하다. 하지만 신념이 없는 인생, 의리를 저버린 한생은 심장

은 있어도 박동이 없고 육체는 있어도 넋이 없는 무의미하고 공허한것일뿐이다.

오늘도 신념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살아있는 항일혁명렬사들을 비롯한 유명무명의 신념의 려사들, 그들의 짧았어도 빛나는 한생은 새세대들에게 새겨주고있다.

불변의 신념과 지조를 지닌 사람만이 력사앞에 떼떈한 인생의 자욱을 새길수 있으며 조국과 후손들의 기억속에 영생한다는 철의 진리를.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슬기야, 영생이란 말그대로 영원한 삶이다. 영생은 누구에게나 차례지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 자기를 바치고 신념을 지켜싸운 사람들만이 누릴수 있다. 너도 신념의 강자가 되어야 한다.》

《알겠어요.》

나는 별스레 어른스러워진 아들의 눈빛을 감수하며 역세여진듯한 자식의 손을 맞잡고 려사릉을 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손마다 꽃송이를 들고 주작봉마루로 오르고있었다.

글 임향심



고조되는 답사열풍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대오가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백두산을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간주하고있다.

그것은 백두산이 조선혁명의 책원지, 혁명의 성산이기 때문이다.

백두산에는 우리 인민모두가 절세의 애국자, 항일의 전설적 영웅으로 높이 우리러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고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 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와 밀영들, 항일혁명투사들이 남긴 구호나무, 항일대전의 준엄한 전구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사적지들은





후대들에게 백두의 혁명전통을 이어주고있다.

오늘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열풍은 전국적 범위에서 더욱 승화되고있다.

2019년 11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단행하신 백두전구들에 대한 역사적인 군마행군소식은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군마행군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에 뿌리내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것은 우리당의 일관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손발이 시리고 귀뿌리를 도려내는듯한 추위를 느껴보아야 선렬들의 강인성, 투쟁성, 혁명성을 알수 있고 또 그 추위가 얼마큼 혁명열

을 더해주고 피를 끓여주는가도 체험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백두전구에 새겨진 그이의 불멸의 자욱은 백두대지에 겨울철답사행군의 거세찬 대하를 더쳐놓았다.

전국의 당선전일군들이 겨울철답사의 기치를 제일먼저 추켜들고 강설에 묻힌 밀림속에서 항일의 전구들을 편답하였으며 그뒤를 이어 전국각지의 답사대오가 백두의 눈보라를 헤치며 세차게 굽이쳐갔다.

2019년 12월 한달동안에만도 130여개 단체의 9 000여명이 답사길에 올랐으며 지난 5년간 겨울철답사자수는 15만여명에 달한다.

겨울철백두산답사는 그대로 답사자들이 항일유격대원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간고한것이였는가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으로 되고있다.

손발을 순식간에 얼구는

혹한과 키를 넘는 눈길을 극복하면서 답사자들은 혁명선렬들이 어떤 정신력으로 모진

난관을 극복해왔는가를 체험하며 그 과정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가장 귀중한 정신적재보임을 다시금 새겨안는다.

화학공업성 국장 리운천은 안온한 방에서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책자를 열백번 번지기보다 눈보라불어치는 백두산에 한번 오르는것이 얼마나 큰 감화력을 발휘하는가를 똑똑히 새기게 된다고 말하였으며 국가설계총국 처장 김강철은 백두산에로의 겨울철답사는 항일의 피어린 력사가 회상기의 글줄이나 흘러간 옛시절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산체험으로 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만고의 항전사가 력력히 새겨진 백두전구를 헤쳐가는 행군의 나날은 답사자들에게

있어서 평범한 나날의 10년, 20년을 두고도 얻지 못할 숭고한 정신세계를 간직하게 한다.

답사기일은 짧아도 답사자들이 받아안은 정신적량식은 크며 그 실효 또한 크다.

온 사회에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기풍이 맥박치고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고있다.

오늘 백두산전구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가장 폭넓고 깊이있게 새겨주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교정으로 소중히 자리잡고 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철진
최은혁



보금 자리

(전호에서 계속)

북만일대에 있던 맹탄장부대가 안도지방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목적은 료녕일대의 당취오 자위군과 련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합작을 성사시키자는데 있었다. 구국군부대에서 오의성파의 사업을 하고있던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남북만 항일군의 련합을 통하여 만주전역에서 반일투쟁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오의성이 안도에 맹탄장부대를 보낸 다른 하나의 목적은 아편을 입수하여 군자금을 충당하자는데도 있었다. 안도일대는 아편과 인삼의 주요한 산출지였다. 당취오도 부하들을 파견하여 안도의 아편을 독차지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서는 아편이 돈을 대신하는 위력한 등가물로 인정되고있었다.

《구국군이 돈화와 액목에서 김일성동지네 부대와 함께 성시를 칠수 있는것은 아편덕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안도에서 아편을 대량 구입하여 나누어준것이 대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계기로 되였거든요.》

리광의 집에서 반일병사위원회를 할 때 왕윤성은 룡담절반, 진담절반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벌써 이런 비밀을 서슴없이 터놓을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사이가 되였었다.

왕윤성은 안도에 체류하는 기간 우리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내가 호진민이나 후보중한테 보내는 련락도 그가 하였고 후보중이나 호진민이 나에게 보내는 련락도 그가 말해주었다. 왕윤성은 구국군부대에서 선전간사의 간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사령부는 말할것도 없고

련대부나 대대부, 중대부같은데를 마음대로 돌아다닐수 있었다. 그는 나와 구국군에 파견된 공산당원들사이에서 전달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사범학교계통출신의 인테리들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왕윤성도 허우대는 크지만 성품이 매우 온화하고 선량하였다. 그는 녕안에서 사범학교를 다닐 때 베이징, 남경, 천진과 같은 대도시들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동창생들의 영향을 받아 혁명활동을 시작한 사람이였다. 그가 직업적인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성위의 영향도 컸다고 한다.

《동만에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한 지금 김일성동지에 대한 기대는 참으로 큼니다. 당사업, 유격대사업, 구국군과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만혁명이 유능한 전략가들을 필요로 하고있는 때에 김일성동지가 왕청에 온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는 동만과 북만에서 벌어지고있는 여러가지 사변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하였으며 동만당앞에 제기되고있는 당면문제들을 두고 나와 함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날의 론의에서 절박한 문제로 상정된것은 각 유격구역들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중대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우고 군사력량을 질량적으로 시급히 확대강화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후 동장영과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왕청의 유격대 중대들은 대대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서 움직이게 되었다.

그후 동만의 다른 현들에서도 중대들을 총괄하는 대대들을 내오고 지휘관들을 새롭게 배

치하는 개편과정을 거쳐 유격운동의 본격적인 활성기를 준비하였다.

우리의 왕청입성은 이처럼 인상적인 세부들과 사건들로 가득차있었다. 얼마 안있어 우리는 인차 왕청풍토에 익숙해질수 있었다. 활동무대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항시적으로 느끼군 하던 서먹서먹한 감정은 인차 새 고장에 대한 애착과 호기심으로 바뀌어졌다.

1933년 당시의 나는 사실상 혈혈단신이나 다름없는 몸이였다. 어머니의 상실은 우리 삼형제를 고아로 만들었고 그 삼형제의 보금자리였던 소사하 갈밭부락의 정든 집에 거미줄을 내리게 하였다. 나에게 남은것이란 남의 집에서 눈치밥을 먹고있는 두 동생과 가고싶어도 마음대로 갈수 없는 고향집의 지붕밑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나라에 바치고 쓸쓸히 살아가고계시는 조부모님들뿐이였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무시로 떠오르는 그 고향에 대한 애잡짤한 향수뿐이였다. 조부모님들에게 바치고싶은 나의 효도는 고향집 토방에까지 가닿을수 없었고 동생들을 돌보아주고 쓰다듬어주고싶은 나의 욕망은 속절없는 걱정으로만 남아있을뿐이였다.

이제 내가 정을 기울일 곳이란 유격구밖에 없었다. 유격구의 인민은 나의 조부모, 나의 부모, 나의 동생들을 대신하게 될 혈육이였다. 나는 서성녀어머니의 모습에서 곧 우리 어머니의 인덕과 사랑과 은정을 되찾았다.

적들의 항시적인 봉쇄와 거듭되는 《토벌》속에서 동만의 유격근거지들은 처음부터 중중첩첩한 시련의 고비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싸움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고비도 많았던 잊지 못할 력사의 땅 왕청, 어떤 날은 한

유격구에서 희생자가 수십명씩 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주민가옥들과 병실들이 수십채씩이나 불에 타버리기도 했다. 병원들은 부상자들과 환자들로 초만원에 이르렀다. 어디서나 겪게 되는 식량의 결핍,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기근은 술한 아사자를 내었다. 때로는 전염병때문에 간도전역이 무리죽음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상점도 없고 시장도 없고 장사군도 없는 세계 유일의 비상업지대, 여기서는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고 가치법칙이 은을 내지 못하였다. 주민들의 옷과 신발은 군대의 전리품으로 충당하였다. 좌경의 전횡으로 유격구의 공기는 이따금씩 불안에 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근거지의 생활에서 주되는것이 아니였다. 유격구의 생활에서 주도적 흐름을 이룬것은 비록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띤것이기는 하지만 적의 폭압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과 락천적인 정신상태였다. 곤난은 막심하였으나 군민의 기상은 백두의 메부리처럼 도도하였다. 일본과 만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이 절해고도와 같은 땅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문화와 도덕을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유격근거지를 사랑하였다.

근거지를 고수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영웅적미거는 동만땅에서 매일처럼 발현되였다.

싸움속에서 해가 뜨고 싸움속에서 날이 저무는 북간도오지,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속에서도 새 생활, 새 료리의 고고지성이 우렁차게 울리는 유격근거지는 내가 사랑하는 집으로 되었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자기꽃병

자기꽃병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재중 항일혁명투쟁연고자 서순옥가족이 2017년 4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기회에 삼가 드린 선물이다.

선물의 몸체겉면에는 은백색 바탕에 구름속을 뚫고 날아가는 8마리의 말이 부각되어있으며 목부위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글과 무늬들이 따붙임기법으로 형상되어있다.

선물밑부분에 형상된 심장

모양의 무늬들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있다는것을 뜻하고있으며 은백색바탕은 백의동포들의 순결하고 절절한 마음을 형상하였다.

선물받침대앞면에 있는 《팔준웅풍》이라는 글은 8마리 준마의 위풍이라는 뜻으로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번영과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펴고 내달리는 조국의 기상을 반영하였다.

* * *



선군길에 새겨진 사연깊은 지명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장정의 길에 바치신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은 그 상징으로 불리우는 철령과 오성산, 초도를 비롯한 지명들과 더불어 오늘날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오성산

최전연에 자리잡고있는 오성산은 1 500m전방이 군사적위험지대이며 해발 1 000여m나 되는 우리 나라 최전선의 고지들중에서도 높고 험하기로 손꼽히는 령이다. 가파로운 산비탈과 벼랑길을 따라 고지정점까지 오르자면 무려 150여개의 굽이를 돌아야 한다.

1998년 8월 어느날 련일 비가 내려 질척해진 진창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성산에로의 현지시찰의 길에 오르시였다.

결에는 아찔한 천길벼랑, 미끄러지면 한치한치 다시 오르고 예리한 돌들에 찢려 차바퀴가 터지면 바꾸어끼우기를 그 몇번, 차바퀴가 벼랑끝으로 지쳐내리는 위험천만한 순간들...

더는 오르실수 없다고 앞을 막아서는 일군들을 만류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미끄러지는

차체에 서슴없이 어깨를 들이미시였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칼벼랑길을 뚫아 찾아오신 그이를 뵈옵는 군인들은 크나큰 걱정 of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어느때인가 오성산을 참관하였던 우리 나라 주재 어느한 나라의 대사관무관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나는 김정일장군께서 이 오성산에 여러번이나 오르셨다기에 아마도 이곳에 어떤 위력한 신형무기나 대공격집단이 진을 치고있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험하고 높은 령길을 훑아보니 평범한 병사들밖에 없었다. 김정일장군님은 바로 그 병사들을 통하여 선군정치를 받드는 이 나라의 수백만 장병들의 모습을 보시였을것이다.》

철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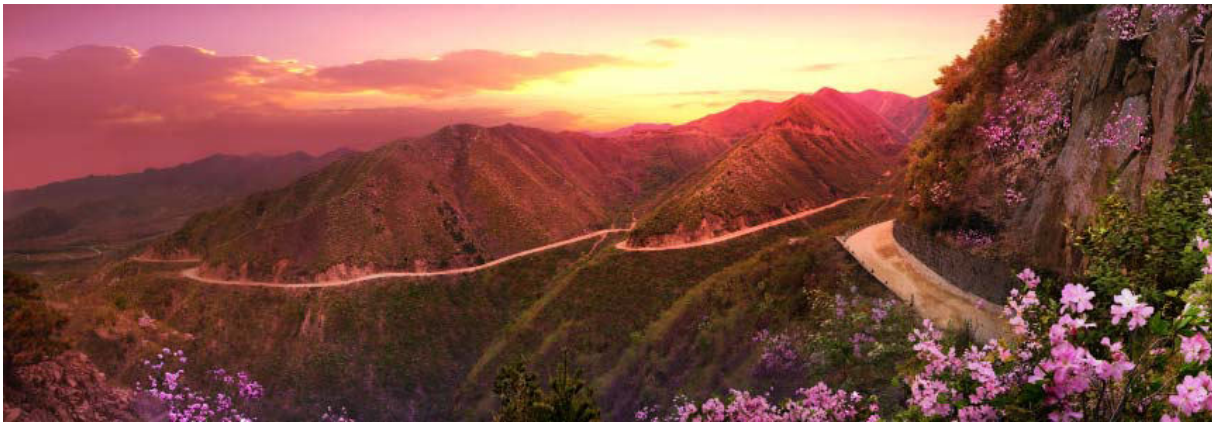
해발 677m의 높이로 솟아있으면서 봄철이면 철쭉꽃이 활짝 피어나 붉은 철령으로 불리우는 철령은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로서 험준한 고개길이 굽이굽이 이어져있다.

1996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철령을 넘으시였다.

언제부터 내린 비로 도로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미끄러운 길에 차가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성산에로의 현지시찰의 길에서 차를 밀고 오르신 곳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군력강화의 길을 이어가시던 나날에 넘나드신 철령

를 그 몇번...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병사들을 찾아 가파로운 철령의 굽이길을 치달아오르시였다.

이 험난한 철령을 그이께서는 많이도 넘으시였다.

철령을 이틀동안 매일 넘으신적도 있고 한달 동안에 두번이나 넘으신적도 있으며 1998년과 2005년에는 한해에 네차례나 철령을 넘으신 그이이시였다.

뜨거운 열풍속에서도 넘으시고 눈비를 맞으면서도 넘으시였으며 밤에도 넘고 새벽에도 넘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령길을 이어가시였다.

더는 험한 철령을 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아뢰이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자신의 진정을 이렇게 터놓으시였다.

나에게 더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최고사령관이 전선이 위험하다고, 천길 낭떠러지가 무섭다고 비켜선다면 누가 나의 병사들을 찾아가겠는가. 언땅에 배를 붙이고 밤을 지낼 때 고향집 생각보다 최고사령관을 더 잊지 못하여 그리워하고있는 병사들을 앞에 두고 나에게서 철령줄임증이란 있을수 없다. 나의 철령행 전선길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

초도

2012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해안전방초소인 초도를 현지시찰하시기 위해 부두에 도착하시였다.

그런데 이날의 바다날씨는 1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도를 찾으시였던 날 못지 않게 몹시 사나웠다.

잠시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함선을 타고 초도로 향해하니 1996년 11월에 사생결단의 의지를 지니시고 세찬 풍랑을 헤쳐 초도의 군인들을 찾으시였던 장군님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장군님께서 초도에 가시던 날 파도가 얼마나 높았던지 생전에 그에 대하여 자주 추억하곤 하시였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의 귀전에는 금시 그날의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바람속도가 초당 20m이고 3~4m로 높아지는 파도속에서 세차게 요동치는 쾌속정...

이날 위대한 장군님을 그토록 그리던 초도의 병사들도 그이께서 타신 배를 보고 제발 오시지 말아달라고 목메여 웨치며 눈물을 흘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때를 추억하시며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선군장정의 길은 초도의 풍랑길과 같은 사선의 고비들의 연속이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선군장정의 길에 깃들어있는 만단사연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나운 풍랑길을 헤쳐 초도의 병사들을 찾으신 그때로부터 초도는 그이께서 헤치신 선군혁명의 길, 사회주의수호전의 길이 얼마나 준엄하고 간고했는가를 말해주는 력사의 증견자로 되였다.

* * *

수 기

그 롤에서 영웅청년들이 자란다

사람의 한생에서 청춘시절은 참으로 귀중한 시절이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열정과 힘이 용솟음치는 그 시절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친 이 나라의 참된 아들딸들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그러한 청년들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 그들이 세운 소박한 위훈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은혜로운 품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의 품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부문으로 달려나가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고 만 사람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는 미덕, 미풍의 발현자들로 떠받들리는 이 땅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대할수록 잊지 못할 영광의 날이 어제런듯 돌이켜진다.

2015년 10월 어느날 산세 험한 북방길을 또다시 달려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였다.

폭풍같은 환호를 울리는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은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그대로였다.

그날 뜻깊은 연설을 하시던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오늘도 나의 귀전에 메아리쳐온다.

저기 바라보이는 저 높이 쌓인 언젠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심의 루적이며 1호발전소언체의 높이는 영웅청년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 청년강국의 존엄의 높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께서 이 세상에 우리 청년들처럼 번쩍거리는 도시의 변화가가 아니라 인적도 없는 심심산골에 출신 달려와 당의 뜻을 꽃피우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청년들, 스스로 《백두청춘대학》이라는 파정안을 만들고 매일, 매 시각량심의 점수를 매기면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해나가는 그런 훌륭한 청년들은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실 때 역대우같은 사나이들도 세차게 어깨를 떨며 오열을 터치였다.

그때 청춘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영광과 행복감으로 하여 준공식장은 눈물의 바다, 격정의 바다를 이루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당의 마음의 기둥, 역척의 지지점이 되어주고있다는 최상최대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그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무한한 힘을 지닌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로 자라날수 있는것이다.

어찌 이뿐이라.

위대한 아버지의 그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각도 심심산골의 발전소건설장과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증산의 동음높은 공장들과 농촌의 그 어디서나 불굴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우리 8.28청년돌격대관리국의 청년돌격대원들도 전위거리 건설과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건설, 각지의 농촌살림집 건설에서 청춘의 자욱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았다.

우리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것은 오직 하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만 있으면 지구도 든다는 역척의 의지와 산악같은 담력이다.

우리 청년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장엄한 진군길우에서 어제와 그리하였지만 래일도 영원히 위대한 **김정은**시대 영웅청년으로서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것이다.

8.28청년돌격대관리국 부국장 김상철

명사십리가 인파십리로

지난 7월 1일부터 국내손님들로 봉사를 시작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항구문화휴양도시인 강원도 원산시 갈마반도의 명사십리동과 룡천리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있다.

명사란 《명 鳴(울 명)》, 《사 沙(모래 사)》란 뜻으로서 십리구간에 펼쳐진 모래가 하도 정갈하고 깨끗하여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나갈 때와 모래발을 사람이나 동물이 밟을 때 마치 새울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하여 불리워졌다.

이렇듯 아름다운 모래불에 해당화와 주변의 키높이 자란 소나무, 맑고 푸른 조선동해의 물결이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경관을

펼쳐놓아 세계적인 해안관광지구로서의 면모를 한껏 더해주고있다.

관광지구의 한 일군은 하루에도 수만명씩 찾아온다고, 원산시민들은 물론이고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수는 미처 다 셀수 없다고 하였다.

관광객들은 조형예술적으로 독특한 미를 갖춘 수백동의 건물들이 리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백사장을 따라 즐비하게 일떠선 관광지구의 웅장화려함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해안관광의 진미를 한껏 느낄수 있게 해수욕 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이 충분히 꾸려진 관광지구를 돌아보면서 손님들은 관광문화의 새 경지를 가슴벅차게 체험하고있다.





관광지구에서는 해안관광지구의 특성에 맞게 체육형관광자원, 휴식위주관광자원, 해상경치부감자원을 리용하여 다양한 해양관광활동을 진행할수 있다.

이곳에 려장을 풀어놓은 관광객들이 제일먼저 찾는 곳은 해수욕장이다.

맑고 푸른 바다물에 온몸을 시원히 적시며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파도를 헤가르는 고속보트들의 경쾌한 질주와 흰 모래불을 누비는 오토

바이들의 동음, 해안관광문명을 누리는 기쁨과 랑만을 저저마다 사진에 담는 관광객들로 명사십리는 인파심리로 화하고있다.

특히 해삼, 전복, 대합, 성게, 가재미를 직접 잡기도 하고 바다속의 신비로움을 체험할수도 있는 잠수기재봉사는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원산시에서 살고있는 리철심은 깨끗한 바다물과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치가 조화를 이룬 해

안관광지구가 정말 좋다고, 봉사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가족들과 세번째로 오는데 매번 류다른 감흥을 받는다고 하였다.

명사십리아외물놀이장도 손님들의 인기를 모으며 흥성이고있다.

급강하물미끄럼대, 썰매물미끄럼대, 물스키를 비롯한形形色색의 각이한 유희기재들을 승벽내기로 리용





하면서 특유의 아찔한 쾌감들을 맛보며 터치는 탄성들이 끝없이 울려나왔다. 실내물놀이장에서 인민의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관광지구에는 봉사망들도 그쵸히 갖추어져 있다.

평양랭면과 같은 민족로리와 세계로리들을 전문으로 봉사해주는 식당들과 결혼식과 각종 연회를 진행할수 있는 종합식당, 청량음료점을 비롯한 다양한 급양봉사망들에서 관광객들은 훌륭한 봉사를 받고있다.

평안북도 염주군에서 온 한 농장원부부는 이곳에서 옥류관의 료리사들이 만든 평양랭면을 비롯한 명료리들을 맛보게 될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특히 축양장과 관광지구의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로 만든 산물고기료리는 손님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슈퍼마켓식상점들과 화장품상점을 비롯한 판매봉사단위들에서는 관광객들의 관광활동과 생활에 필요한 소모품들과 해수욕비품일식, 해양놀이기재 등과 함께 다양한 기념품들에 대한

어디서나 넘쳐나는 웃음과 랑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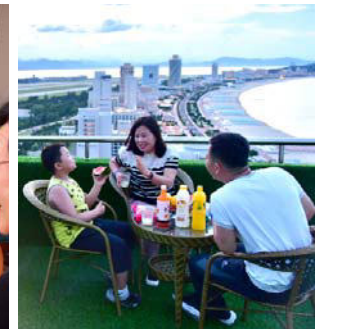
황홀한 관광명소에로의 여행을 열망하는 전국 각지의 인민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판매봉사를 진행하고있다.

곳곳에 꾸러진 정구장과 모래터배구장, 바드민턴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들과 유희오락시설들에서 관광객들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글 변진혁

사진 리철진, 최원철, 김혁주



평양의 자랑 옥류관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터전을 잡고 푸른 추녀를 활짝 펼친 옥류관.

옥류관이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맑고 시원한 육수와 윤기 흐르고 가늘면서도 쫄깃쫄깃한 국수발을 비롯한 평양랭면고유의 향기가 가슴에 흘러들어 절로 군침이 돈다.

누구나가 한번 먹고나면 그 맛을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는것이어서 평양랭면이라는 말은 옥류관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

그만큼 옥류관은 평양랭면을 상징하고 평양랭면이라고 하면 누구나 옥류관을 생각한다.

우리와 만난 문경호경리는 옥류관이 인민들의 생활속에 친근히 자리잡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 위 대 한 수 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경치좋은 대동강반의 옥류벽에 민족적형식의 특색있는 급양봉사기지를 일떠세울것을 받기하시고 터전도 잡아주시였으며 몸소 그 이름을 지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옥류관이 민족료리발전의 원종장, 세상에 이름 높은 봉사기지로 더욱 빛나도록 하기 위하여 원자재보장대책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준공식이 있는 때로부터 옥류관은 여러 차례 개건되였다.

하여 옥류관은 본관과 1관, 2관으로 꾸려지게 되였으며 명료리들을 봉사하는 옥류관 료리전문식당과 분관인 모란각 등을 포함한 대중봉사기지로 발전하게 되였다.

옥류관에서는 평양랭면과 고기쟁반국수를





**옥류관은 우리 인민들뿐 아니라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즐겨 찾고
있다.**

비슷한 민족음식들과 자라리, 철갑상어, 메추리, 연어, 명료리 등을 맛있게 만들어 봉사하고 있다.

특히 평양랭면의 고유한 맛과 전통을 잘 살려나가기 위하여 모든 요리사들이 정성을 바치고 있다. 하여 옥류관의 국수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매력을 잃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음식의 고유한 맛과 냄새, 색깔이 그대로 살아나고 요리의 영양학적, 약리적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새로운 요리들도 봉사하고 있다.

식당에서는 여러 차례의 요리품평회와 요리경연들을 진행하여 요리사들이 맛의 향유자는 인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요구와 편의, 평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요리가공기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 있다.

옥류관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요리축전, 전시회에서 여러 차례 금메달과 단체특등상을 수여받았으며 우리 나라의 요리발전에서 원동력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수도 평양의 중심부 명당자리에 민족적 정취가 흘러넘치는 조선식전축물로 솟아오른 때로부터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즐겨 찾는 명성높은 식당으로 되어왔다.

얼마전에도 옥류관을 찾았던 해외동포는 평양랭면은 조선의 맛, 조국애와 동포애가 응축된 별맛이라고 엄지손가락을 펼쳐들며 최고의 최고라고 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의 한 학생은 옛날 궁중에서만 만들어 수라상에 올리곤 했었던 어복쟁반국수가 어떻게 되어 누구나 즐겨 찾는 대중음식인 고기쟁반국수로 되었는지도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너무 맛있어서 다음번에 오면 10그릇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하였다.

평양랭면 그 이름과 함께 인민의 봉사기지로 자랑될만한 옥류관은 2011년 우리 나라의 최고의 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이제 얼마 안있으면 창립 65돐을 맞이하게 된다.

글 김슬기
사진 리영철, 김영호



잔치와 둘러리의 유래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가정에서 진행하는 생일잔치, 결혼식 같은 대사를 생일잔치, 결혼잔치라고 불렀다.

전통적인 가정의례에 잔치라는 말이 어떻게 붙게 되었는지.

가정에서 일정한 레법에 따라 상도 차리고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사자 즉 본인을 축하하는 레식을 할 때 사람들은 오랜 풍습대로 잔에다 술을 부어들었다.

그것은 조상대대로 조선사람들은 술을 신성한것으로 일러오면서 여기에 축하, 약속, 맹세 등의 뜻을 담아온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가정의례에 반드시 잔을 놓고 의례가 진행되어오면서부터 잔치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결혼잔치를 할 때 신랑신부의 편의를 보장해주면서 레식을 주관하

는 사람을 둘러리라고 한다.

결혼식에서는 둘러리가 있음으로 하여 결혼당사자들이 안정된 기분으로 레식에 참가하며 도덕적 관습에 맞게 대사가 진행된다.

결혼식때 둘러리를 세우는 풍습은 수모에서부터 유래된것으로 전해진다.

수모는 봉건사회에서 천민출신으로 남의 집에서 살며 그 집의 잔일을 해주던 녀자를 말한다.

이런것으로 하여 수모는 그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의 몸단장을 거들어주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여기고 성의를 다하곤 하였다.

신부가 시집으로 갈 때에도 수모는 신부를 따라 함께 동행하여 그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신랑집에서 신부가 요기상이나

큰상을 받았을 때에도 수모는 신부가 음식을 마음놓고 먹을수 있도록 거들어주었으며 신부가 시부모에게 폐해를 드릴 때에도 신부의 화장을 고쳐주고 옷매무시도 바로 잡아주었다.

시부모에게 절할 때에도 수모는 신부의 옆에서 그를 부축하여 주었다.

낯선 신랑집으로 간 신부에게 있어서 수모는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다.

수모를 두는 풍습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생겨났다. 그후 이 풍습은 우리 나라에서 근대화과정에서 축소되고 혼례가 간소화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랑신부의 옆에서는 둘러리형식으로 변화되었다.

* * *



신주현

보링공은 곡선을 그려도

《그래, 결심이 섰느냐?》
《예. 제가 아버지의 뒤를 잇겠습니다.》
이것은 평양보링관 관장 신주현과 그의 아버지가 17년전에 나눈 이야기이다.
이렇게 되어 김일성종합대학 경제 학부를 졸업하고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일하던 신주현은 평양보링관으로 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신주현은 그 선택이 어떤 마음가짐을 동반해야 하는줄 다 알수 없었다.
특히는 평양보링관 과장을 거쳐 아버지가 맡아 하던 관장사업을 인계받은 후 더욱 그리하였다.
보링관에서는 해마다 집중보수를 진행하고 일부 설비들도 갱신하였지만 보링핀기동들과 제동장치에 매없이 말썽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 부문에 대한 파악이 적었던 탓에 그는 이렇다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설비들을 초대관장이 있을 때 개조하였는데 또 하겠는가고 하면서 그럴바에는 수입하자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오락설비들을 더 늘어 수입원천을 확보하자고 하였다.
이날 신주현관장은 생각이 깊었다.
보링관의 설비 하나하나에 일본에 살고있는 큰이모인 권영숙동포의 애국지성이 깃들어있었기때문이었다.
1994년 2월 평양보링관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대관장으로 일하게 된



신주현과 그의 가족은 《금수강산》편집부 기자들을 만난 기회에 해외에 살고있는 친척친우들에게 보낼 사진을 찍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주시고 평양보링관을 총련상공인 권영숙동포와 그 가족이 기증했다는것을 아시고서는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치하도 해주시고 그 상공인의 동생이 초대관장의 안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앞으로 평양보링관운영과 설비관리사업을 잘하여 보링관이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2016년에 설비갱신사업을 시작하고 자체의 기술과 자재로 100여종에 1만 8 000여점이나 되는 부속품들을 만들어내었으며 점수계산을 진행하는 40개 주로의 컴퓨터들도 전부 교체하였다.

신주현관장은 일시나마 흔들리고 나약해졌던 마음을 다잡고 련관단위들과 협동하여 전자제동기, 수평미끌관, 보링핀기동들을 비롯한 부속들을 자체로 리용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모든 설비들이 정상운영될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일요일과 명절날 온 가족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여러 봉사시설도 꾸려놓았다.

그의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평양보링관을 찾는 사람들은 보링경기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상현실체험관, 실내골프장, 피로회복실 등에서 희열과



신주현은 조선보링협회 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다. 이 사진은 2023년에 진행된 성, 중앙기관일군 보링경기에서 최고점수상을 받은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량만속에 즐거운 하루를 보낼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고향의 나이에 조국을 방문하였던 권영숙동포는 전보다 더 훌륭해진 평양보링관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때때로 신주현관장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한다.

《보링공은 곡선을 그리며 굴러가도 주로만은 언제나 변함없는 직선이다. 그 곧바로 뻗은 주로가 바로 할아버지가 걸어왔고 아버지가 걸어왔으며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바른길이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유모아

쇠덩이

부엌일을 하던 안해가 일하기 싫어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밖에 비가 오는데 나가서 빨래들을 좀 들여오세요.》

《그러다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

《아이, 그 쇠덩이같은 몸에 병은 무슨 병?》

《쇠덩이가 비에 맞으면 녹이 쓴다는걸 몰라?》

* * *



《마음이 든든하다》



홍안의 시절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모습을 뵈옵던 때가 어제만 같다.

우리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은 가까이

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더 원심을 쓰는 다심하신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세월은 흘렀지만 나는 그때를 잊을수 없다.

어렵고 힘들 때면 그날의 감격을 생각하며 동포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고 생활권,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에 더 전심전력하고있다.

그러던 2022년 뜻밖의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

다. 조국에서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되었다는것이였다.

우리 동포들은 서로 일싸안고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하였다.

해마다 조국에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는것만도 고마운데 해외동포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법까지 채택하였다니 우리들의 기쁨은 하늘에 닿았다.

하기에 우리 동포들은 이역에 살아도 언제나 배심든든히 생활하고있으며 누구나 조국을 위해 한가지라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다.

이것은 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리주성

놀라운 현실

내가 조국에서 보낸 나날은 놀라움의 연속이였다.

처음 놀라움을 자아낸것은 국가가 집을 지어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한다는 사실이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 집마련이 한생의 소원으로 되고있는데 조국에서는 그 소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정말 놀라웠다.

새집을 받아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막 부러웠다.

그것만이 아니였다.

신문과 TV에서도 나는 수도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서슴없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행동은 쉽지 않은것이다.

많은 나라 청년들이 도시행을 할 때 주저없이 탄광, 광산, 농촌에 탄원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조국에서만 볼수 있을것이다.

놀라움은 또한 최근 몇해어간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이다.

조국에서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일을 멈춤없이 진행하였으며

인민들이 그 락을 누리도록 하였다. 양덕온천문 화휴양지, 강동종합온실농장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다니면서 나는 폐부로 느낄수 있었다.

하기에 누구나 조국에 오고싶어하고 조국에 왔다가면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나는 앞으로 조국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할 결심이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량금해



단삼추출액



인삼 못지 않은 보약제

피를 맑게 해주며
모세혈관의 순환을 좋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으뜸!



집선봉의 구름바다

집선봉은 조선동해와 가깝고 외금강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어 외금강의 전경과 해금강의 전경을 바라볼수 있는 좋은 전망대의 하나이다.

외금강의 상팔담

금강산팔선녀전설을 가지고있는 상팔담은 천연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다.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금강산

우리 나라의 명산 금강산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회의에서는 금강산이 문화적전통과 천연생태계, 명승이 하나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문화 및 자연경관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인정하고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할것을 결정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명산중의 하나로 불리워온 금강산의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의 아름다운 자연풍치, 1만 2 000봉우리와 기암괴석, 수려한 폭포와 담소, 호수, 청신한 대기와 수정같이 맑은 물, 계절 특유의 색조 등 특이한 자연미와



독특한 미를 자랑하는 기암괴석들의 일부



내금강의 표훈사

670년에 세워져 신림사로 부르다가 3년후 표훈사로 고쳐불리운 이 절은 금강산 4대절의 하나이다.



2018년 조국에서는 금강산의 일만경치를 형상원천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 창조되어 세세년년 전하여온 백수십편의 금강산전설을 국가비물질유산으로 등록하였다.

다양한 생물상, 오랜 절과 절터, 돌조각을 비롯한 문화유산들, 금강산전설과 같은 비물질유산들은 명산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문화유산보호정책

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 유구한 력사와 문화, 천하절승을 자랑하는 우리 나라의 명산이 인류공동의 재부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더욱 명성떨치게 되었다.

사진 김혁주, 공유일, 리충성, 김강무



금강산에는 돌조각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다.

손이 닿으면 병이 낫는다

잡지 《금수강산》의 애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잡지를 동포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여기고 사랑해주는 여러분에게 전통적인 치료방법의 하나인 수법치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며칠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지내던 한 중년녀인을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였는데 첫눈에 보기에다 오래동안 앓고있던 위병이 좀 나은듯하였습니다.

그의 건강상태에 대해 물어보자 녀인은 보다싶이 지금 이렇게 건강할수 있는것은 고려의학 종합병원에서 수법치료를 받은 덕이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지난 시기에는 조금만 몸이 아파도 약물에 매달렸는데 수법치료가 그렇게 효과가 좋은

고려치료방법이라는것을 뒤늦게야 잘 알게 되었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이였습니다.

수법치료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림상실천을 통해 창조되고 부단히 발전되어 왔으며 독특한 치료방법과 효과성으로 하여 오늘까지도 그 생활력이 높아지고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라 전통의학의 하나인 수법치료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널리 보급하고있는 고려의학종합병원으로 취재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침구병원 수법치료과 과장 홍유경은 《수법치료는 의사가 고려의학적리론에 따라 환자의 몸결면에 자극을 주어 병을 예방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수법치료는 아픔땀이작용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질병에 다 적용할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척추사지관절계통질환을 비롯한 순환기계통, 소화기계통, 물질대사, 안과, 치과질환 등에 약물을 쓰지 않고 손쉽게 적용할수 있으며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아무곳에서나 할수 있는 좋은 치료방법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치료방법에는 크게 풀기수법, 침혈부위누르기, 피동관절료법, 견인료법, 척추교정료법 등이 있습니다.

수법치료를 하면 국소적으로 혈액순환과정을 좋게 하여 물질대사를 개선하며 해부학적위치이상으로 자극받던 신경과 혈관들에 대한 압박을 해제하고 아픔을멈추게 합니다.

아무리한 기구도 없이 환자의 일정한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놓기, 굴리기, 주무르기, 쓰다듬기, 꼬집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의 아픔을 멈추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우리 선조들은 생활과 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몸이 상했을 때 본능적으로 손으로 눌러 지혈을 하거나 비벼주어서 아픔

을 멈추고 부은것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랜 기간 걸치는 과정에 마침내는 원시적인 수법치료방법을 도출해냈으며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기간 이곳에서 수법치료를 받고 병이 완쾌되었던 재일, 재중, 재미동포들도 조국의 수법치료는 고려의학과 현대의학의 리론들에 따라 환자의 몸결면에 일정한 자극을 주어 치료하는 방법인것으로 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안마, 지압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국에서는 수법치료의 치료범위가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는것으로 하여 고려의학 종합병원에서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의료봉사단위들에서 적극 리용되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슬기가 깃든 수법치료는 수법묘기만 습득하면 다른 치료기재나 의약품이 없이 맨손 하나만으로도 만병을 치료할수 있는 신기한 치료방법입니다.

글 연옥



눈에 해로운 8가지 조건

- 술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모세혈관이 팽창된다. 눈주위의 살은 연하고 혈관이 가늘기때문에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눈주위의 모세혈관이 쉽게 파괴될수 있다.
- 담배를 입에 물고 일을 하거나 책을 보게 되면 담배연기때문에 눈을 쪼프리게 되는데 그러면 눈주위에 주름살이 생긴다.
- 건조한 환경에서 오래 있으면 수분이 부족하여 눈이 마르게 된다.

- 과도한 햇빛쬐이기는 눈에 나쁘다. 햇빛속에는 자외선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10시부터 15시사이에는 자외선이 세진다. 이런 때에 과도한 햇빛쬐이기를 하면 눈주위에 주름살이 생기고 백내장과 기타 눈병이 생길수 있다.
- 황사현상이나 유독성가스, 그 밖의 물질로 오염된 공기는 눈에 여러가지 병을 일으킬수 있다.
- 기한이 지난 화장품이 눈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 이런 화장품

에서 생겨난 세균은 눈에 침습하면서 감염을 일으킬수 있다.

- 그릇된 음식조절도 눈에 나쁘다. 일부 사람들이 몸가기를 위해 음식조절을 하면서 지방과 탄수화물섭취량을 줄이는것은 옳지만 동시에 남새와 과일을 정상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눈보호에 나쁜 영향을 준다.

-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도 눈에 해롭다.

* * *



덕흥리 벽화무덤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덕흥리벽화무덤은 우리 선조들이 408년에 만든 인물풍속도를 그린 고구려벽화무덤이다.

무덤은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무학산아래 경치좋은 언덕위에 자리잡고있다. 이 일대에는 고구려시기의 이름난 벽화무덤들이 많이 분포되어있다.

무덤발굴은 1975년에 진행되었다.

무덤은 고구려돌칸흙무덤으로서 돌을 쌓아 무덤칸을 만들고 그우에 흙을 덮어 무덤무지를 마련하였다. 무덤무지형태는 방대형이며 무덤내부는 안길, 앞칸, 사이길, 안칸으로 이루어져있다.

무덤앞칸 북벽사이길우에는 무덤의 주인공은 진이라는 사람이고 신도(오늘의 박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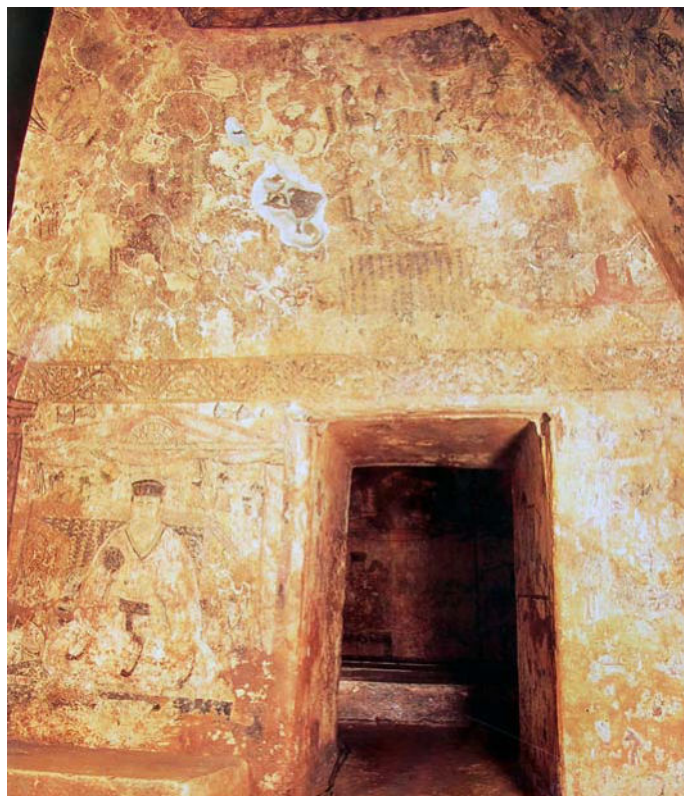
방출신으로 장군직과 태수직을 거쳐 유주자사를 지냈으며 나이 77살에 죽어 고구려 광개토왕의 영락(고구려 광개토왕의 년호) 18년 12월 25일 이곳에 묻혔다고 써여져있다.

무덤안의 벽과 천정에는 주인공의 생에서 의의있고 인상깊은 일들과 당시의 신앙관계 등 다양한 주제의 벽화와 그에 대한 해설글이 써여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벽화무덤들은 수십기에 달하지만 무덤을 만든 년대와 날자, 주인공을 밝힌 글이 나온 무덤은 오직 덕흥리벽화무덤뿐이다.

무덤안에 그려진 벽화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앞칸의 북서벽에 그려진 주인공진과 그와 잇닿은 앞칸 서쪽벽에 그려진 유주의 13군태수들의 모습이다.

앞칸북쪽벽구조와 벽화(→)
앞칸서쪽벽 13군태수들(↓)



안칸벽의 벽화들

남쪽벽 | 서쪽벽
동쪽벽 | 북쪽벽

덕흥리벽화무덤은 무덤의 주인공과 그 축조년대를 정확히 알수 있는 유일한 무덤일뿐 아니라 풍부한 벽화와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4세기후반기 고구려의 강대성과 당시 동방정세의 일단을 밝혀주며 고구려의 우수한 문화와 풍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문화유적이다.

덕흥리벽화무덤은 2004년 7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글 러해

상식

8월의 절기와 민속

8월의 절기에는 립추와 처서가 있다.

립추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이며 처서는 여름더위가 가서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올해의 립추는 8월 7일이며 처서는 8월 23일이다.

이 시기는 찌는듯한 무더위가 가서지기 시작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며 농작물 등이 무르익는 시기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돌피잡이를 하거나 새나 짐승의 피해를 막을 목적으로 논판에 허수

아비를 세웠고 다음해 농사를 위해 풀베기도 진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김장용남새를 심고 가꾸는 일도 매우 중요시하였다.

가을철에 재배하는 남새는 무우, 배추 등이다.

이 시기에 우리 인민은 수단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였으며 진놀이, 기마진놀이와 같은 다양한 민속놀이도 널리 진행하였다.

수단은 찹쌀 또는 찰수수가루 등을 반죽하여 밤알만하게 빚어

끓는 물에 삶아 건져서 찬물에 씻은 다음 물기를 없애고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담그어 먹는 음식이다.

진놀이는 상대편의 진을 어느편이 먼저 점령하는가를 겨루는 놀이이고 기마진놀이는 기마수로 선정된 한명의 아이를 여러명의 아이들이 받쳐올리고 상대편의 기마수를 공격하는 놀이로서 아이들속에서 즐겨 벌어졌다.

이 시기 우리 인민들은 민속무용도 즐겨하였는데 대표적인 춤으로서는 어깨춤과 손벽춤 등을 들수 있다.

* * *



고구려의 애국명장 온달

온달은 고구려시기인 6세기말-7세기초 우리나라 역사에 이름을 남긴 평민출신의 장군이였다.

온달은 비록 가난한 출신이였지만 눈먼 어머니를 위해 효성을 다하였으며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술을 부지런히 익혀 마침내는 고구려의 장군이 되였다.

그는 나라가 위협에 처하였을 때 싸움의 앞장에 서서 고구려군이 승리를 이룩하는데 기여하였다.

온달이 고구려의 애국명장으로 용맹을 떨칠

수 있는것은 그의 뒤받침을 잘해준 공주의 지성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공주는 고구려의 30대왕이였던 평원왕의 딸이다.

공주는 용모가 무척 아름답고 지혜 또한 남달랐다. 더우기 그에게서 특이한것은 어질고 덕이 있는 성품이였다. 공주에게서 흠이라고 찾아보게 되는것은 어려서 자주 울곤 하는것이였다. 그래서 궁중내전에서는 그의 울음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그러나 평원왕은 공주를 끔찍이 사랑하였다. 그는 공주가 울면 《너 그렇게 자꾸만 울면 이 다음에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껄껄 웃곤 하였다.

평원왕에게 있어서 이것은 입버릇처럼 되어버렸다.

사실 왕은 《바보온달》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였다. 그저 소문만 듣고 공주가 울면 그렇게 말하곤 하였던것이다.

당시 온달은 평양성밖의 어느 마을에서 눈먼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있었다. 온달은 매일같이 산에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거나 쉼뿌리를 캐곤 하였다. 때로는 성안에 들어가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도 하였다. 비록 얼굴은 여위고 옷차림이 람루하여 우습게 보였으나 그의 마음은 그지없이 순박하였다. 평양의 잘사는 부자들은 그를 가리켜 《바보온달》이라고 불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눈먼 어머니에 대한 정성이 지극한 그를 칭찬하면서 도와주기도 하였다.

온달은 바보가 아니였다. 그에게는 뛰어난 용맹과 지혜가 있었다.

공주의 나이가 열여섯살이 되였을 때였다.

평원왕은 공주를 위하여 사위감을 물색

하였다. 왕실의 근신의 아들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으나 공주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공주는 왕에게 소녀가 크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였는데 어찌 다른 분부를 하시는가고 하면서 그 뜻을 따를수 없다고 하였다. 왕이 대노하여 공주를 내쫓으라고 호령하자 그날로 공주는 궁중을 뛰쳐나왔다.

그후에는 온달의 안해가 되였다. 공주는 온달과 같이 살게 된 뒤로 남편이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온달에게 검과 창, 활 등을 갖추어주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비롯한 무술을 편마할것을 권고하였다. 온달은 외적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무술을 부지런히 편마하고 병법도 터득하여 누구에게도 짝지지 않는 무사가 되였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 3일에 락랑언덕에서 사냥경기를 크게 하곤 하였다. 온달도 이 사냥경기에 참가하게 되였다. 공주는 남편의 사냥경기출전을 위해 날래고 좋은 말 한필을 구하였다. 사냥경기의 날이 오자 전국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왕도 행차하였다. 이날 경기에서 한 무사가 굉장히 큰 범을 잡아왔는데 그가 바로 온달이였다. 한 관원이 평원왕에게 오늘 장원은 평양성밖 서민 온달이라고 하였다.

장내에서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온달은 평원왕앞에 나섰다.

왕은 그에게 《그대의 이름이 온달이라니 혹시 그 <바보온달>은 아니겠지?》라고 물었다. 온달은 서슴없이 소인이 바로 그 온달이라고 대답하였다.

온달은 인재로 뽑히어 고구려의 장수가 되였다. 그후 외적이 고구려땅에 침범하자 온달은 적들과 싸워 큰 공을 세웠다. 평원왕은 그 용맹에 크게 감탄하면서 레를 갖추어 온달과 공주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온달에게 대형이라는 높은 벼슬을 주었다.

온달은 그 이후의 여러 전투들에서 무비의 용맹을 과시하여 외적을 물리치는데 기여하였다.

* * *



장기수풀이 (32)

장기격언

량포(쌍포)바람에 소대가리 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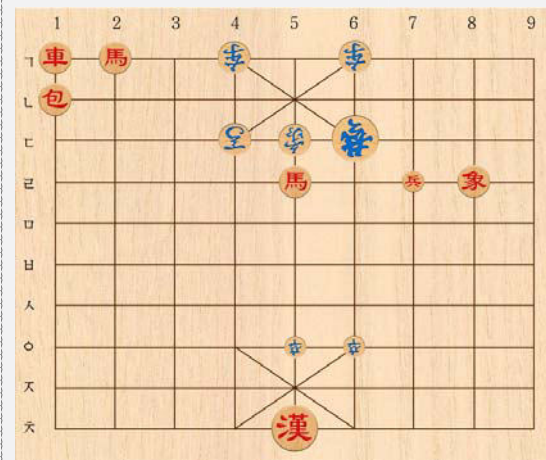
이 말은 량포의 위력을 뜻하고있는데 여기서 량포는 상대방의 포가 하나도 없을 때를 넘두에 두고있다.

량포로 상대방의 궁성을 공격할 때 그 위력은 대단하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량차까지도 부동시켜놓고 통장결속을 하는 실례가 많은데로부터 나온 말이다. 그러므로 량포를 죽이면서 차 하나를 잡는것은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먼저쓰기때 초반전에 량포로 상대방의 차를 잡은 후 점차 방어에서 물리는 현상은 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있다.

장기수풀이 (31)에 대한 답

ㄴ7포ㄴ7, ㄴ5궁76, ㄴ2말ㄴ4, ㄴ6사ㄴ5, ㄴ7포ㄴ5, ㄴ6말ㄴ8, ㄴ5포ㄴ3,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참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